

사찰건축, 이 시대 불교정신 담아야

해인사 새 도량건립 계기로 본 사찰건축 현대화

지난해 12월 26일,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세민 스님)는 한국 건축계에 거대한 화두 하나를 던졌다.

해인사는 이날 개산 1200년 만에 '제2의 창건'이라고 할 만한 신행문화 도량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문화유산인 장경판전이 있는 기존의 해인사는 스님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일반 불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성보박물관이 있는 옛 해인초등학교 자리에 일반불자들이 법회와 기도, 염불, 예불, 참선, 수행, 취침을 할 수 있는 도량을 새로 건립한다는 계획. 이어 지난 달 28일 열린 설계경기 공모에는 80여 개 팀에서 참가신청을 할 만큼 높은 관심을 끌었다. 공사비가 200~300억 원에 이르는 데다 유서 깊은 사찰에 짙을 새로 더한다는 의미 때문만은 아니었다.

"새 시대에 맞는 불교사찰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해인사 측의 설명처럼 신행문화 도량 건립은 현대적 사찰 건축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찰 기능 변화 건축적으로 수용해야

현대적 사찰 건축에 대한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도심에 들어서는 사찰들을 중심으로 건축적 변화를 주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다. 서울 능인선원, 충북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 경기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 동국대 대각전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건축가 김개천(이도건축 대표)씨가 설계한 담양 정토사 무량수전은 사찰 건축물로는 처음으로 2001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해 사찰 건축 현대화의 한 모델이 되고 있다. 짙 전체를 현대식으로 건축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한 두 채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거나,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외관은 전통 한옥 형태로 범당 등을 만드는 사례는 더 많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도심에 들어서는 사찰에서 두드러지는데, 김개천 씨는 "불교의 기능 자체가 많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전통적 불교 의식을 중시했다면 도심에 들어서는 사찰들은 신행과 포교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고, 기능이 바뀌니 건축 구조와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통 한옥으로 지으면 평당 건축비가 1500만 원 가량 드는 데 비해 300~500만 원선이면 충분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옛 형식 고집, 실패 많아

그러나 사찰 건축의 현대적 접근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다수

가 사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하고 건축미학적으로도 우수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홍광표 교수(동국대 조경학과)는 "건축 자재만 현대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뿐 수행, 예불, 포교라는 사찰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건

쳐버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김개천 씨는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좋은 건축가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흔히들 설계 비용 때문에 좋은 건축가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좋은 건축가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해인사 신행문화 도량 건립을 계기로 '사찰 건축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다. 사진은 2001년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은 충북 담양정토사 범당.

옛 형식 집착 실패한 건물 많아

수행·예불·포교기능 함께 수용

건축가와 충분한 대화 필요

축 양식적으로도 우수한 도심 사찰의 예를 찾아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사찰 건축의 현대적인 시도에서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것은 불교계가 이 문제에 눈뜬 지 얼마 안 된 탓도 있지만 옛날의 형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도 한몫한다.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는 "대부분 스님들이 생각하는 '현대화'란 한옥 기와집을 약간 변형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도심형 사찰이나 현대 건축을 시도한 절들은 현대적인 재료에서 지붕이나 기와를 올리는 '절충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떨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찰의 기능이나 어떤 정신을 담을 지에 대해서는 건축가와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하지만 조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님들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졸속의 한 원인이다.

▲불교적 전통·현대적 조형 관념 조화 필요

그렇다면 사찰 건축의 현대화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출발해야 할까? 홍광표 교수는 동국대 대각전을 예로 들며 "현대 사찰 건축의 원형은 전통적 불교 교리에서 찾되 단순한 복제나 모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찰은 대부분 산속에 있다 보니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진입과정이 긴 것이 특징이다. 동국대 문화관의 1층 로비를 막아 지은 대각전은 땅이 좁은 도심의 절답게 이를 건물 내부로 끌어들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입주문, 사천왕문을 지나 열반의 세계로 들어선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꾸몄다. 홍 교수는 "불교적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은 건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경, 실내 장식, 불교 미술 등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김개천 씨는 "김대성의 경우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우기에 앞서 당시 고승들을 찾아가 화엄사상에 대한 공부를 먼저 했다"며 "철학 없이 좋은 건물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불교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교적 전통과 현대적 조형 관념을 함께 담아내는 일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능인선원은 현대와 전통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면서도 불교적 상징성을 제대로 담아냈느냐, 혹은 건축미학적으로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느냐는 지적도 함께 받곤 한다. 홍광표 교수는 "엄밀한 의미에서 현대 사찰 건축의 전범이 될 건물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아직은 실험 과정이니 만큼 스님들이 실험적 시도를 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개천 씨는 "우리가 전통을 보존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며 "좋은 사찰 건물은 당연히 이 시대의 불교 정신이 구현돼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현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그 래야 다음 세대의 전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봉렬 교수는 "석굴암의 예를 보자. 석굴암의 구조기법이나 공간형식은 당시로서는 가장 현대적이며 국제적인 최첨단 하이테크 건축이었다. 역사상 그러한 예가 없는 이질적이며 이국적인 형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석굴암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불교건축이요, 한국의 전통이 되었다. 석굴암의 건축가인 김대성이 적당히 과거의 전통을 받아들여 그렇고 그런 기와 집을 지었다면 지금과 같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유산이 되었겠는가? 석굴암은 오늘날도 '전통은 늘 새로운 시도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n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오승민
포천 목련의 집 총무



치매할머니들의 예술작품

'마지막 가시는 길 책임' 자부심

오늘도 장관위 수목화? 닭기에

"우와~, 그림 죽이네!" 아침마다 마음을 조이며 방문을 열 때 나오는 탄성이다. 어느 동양화가 방바닥 장판을 화선지 삼아 걸디걸은 먹물로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놓은 듯, 할머니들이 당신의 배설물로 만들어 놓으신 오늘의 작품이다.

함박웃음 지으시며 그리곤 하시는 말씀, "삼촌! 삼촌도 이 고무마 먹을 꺼?"

아직도 마음이 부족해서 때문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세상에 적신 수세미로 열심히 장판을 닦으면서 생각한다. 어려운 시절에 남들 다니기 힘든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들·딸 기르셨던 기쁨, 장성한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신 행복한 시절, 저 분들도 분명 있었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치매라는 몸살 질환으로 그 사랑하던 자식들과 머논 리에게 버림받아 쓸쓸히 인생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나의 짜증도 깨끗해진 장관위 함께 사라진다.

매일 아침, 기저귀를 차고 주무시는 데도 불구하고 속옷 겹옷은 물론 뒤편 시턴 이불까지 모두 씻을 정도로 소변 양이 엄청나게 많으신 자칭 목련의 집

예쁜이 김 할머니, 밤샘 작업(?)으로 방 안 장판을 모두 찢어놓으시는 말썽쟁이 이 할머니, 주무시기 전에 기저귀를 채워드렸는데도 아침에 보면 기저귀가 온데간데 없어져, 자세히 살펴보면, 기저귀를 다 드셔버리시는 포시가 박 할머니, 소변 한번 보시는데 30여분의 실량이 끝에 겨우 보시는 부끄러움이 오 할머니... 일반인들에게는 "에이~ 설마 그럴 리가?"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곤 하는 일들이 이곳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 내가 근무하

는 이곳. 여기 목련의 집은 오갈 데 없는 중풍·치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조그마한 복지시설이다.

나의 외조모께서는 13년이나 치매로 고생하시다 1998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 홀로 할머니를 평생 보살펴드리다 그것이 인연이 돼 지금까지 졸골 중풍·치매 어르신들과 함께 살게 됐고, 그런 지가 올해로 벌써 9년째이다.

개인의 힘으로는 여부족이겠지만,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작은 의료시설과 좀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훗날 이룩하는 것으로 원을 삼고, 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동참하게 된 지 이제 4년째에 접어든다. 처음엔 심적 부담감으로 거부감마저 들었지만 지금은 나의 외조모께서 열여덟 길이라 생각하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왕 다진 마음이니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대학원 사회복지사 과정을 마치고 작년에 자격증 취득도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비인가 시설이었던 목련의 집을 2002년 8월에 있었던 전국 미신고 시설 등록기간에 맞추어 지금은 신고시설로 전환했다.

신고만 하면 어느 정도는 국가적 혜택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아직도 하루에 수 십장씩 소모되는 기저귀가 생필품, 약값, 겨울철 난방비까지 여러 가지 운영난과 일순부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여분의 치매중풍어르신들을 단 둘이서 돌봐드리는 것도 힘에 부치고 또 한 운영비로 여러 어려움은 많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책임지고 있다는 작은 자부심으로 오늘도 장관위 수목화를 열심히 닭고